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성희롱 피해 여부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장선영¹⁾, 이한이²⁾

The Difference of Nursing Professional Values according to the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in Nursing Student Clinical Practice

Sunyoung Jang¹⁾, Hanyi Lee²⁾

요 약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성희롱 피해 실태를 확인하고, 성희롱 피해 여부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S시에 소재한 일 개 대학에 재학 중인 임상 실습을 경험 해본 학생 중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138명을 대상으로 2016년 11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 하였다. 수집 된 자료는 빈도분석과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 중 병원 실습 전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4.6%이고 임상 실습 중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대상자는 60.9%이었다. 간호학생들이 임상 실습에서 경험하는 성희롱을 유형별로 분류하였을 때 언어적 성희롱(47.8%)이 가장 많았고 시각적 성희롱(44.2%), 신체적 성희롱(39.9%)의 순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성희롱 피해 여부에 따라 간호전문직관의 하위 영역 중 간호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p=.05$)과 간호의 독자성($p=.04$)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임상 실습에서의 성희롱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핵심어: 간호, 대학생, 간호교육, 성희롱 피해, 간호전문직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an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nursing professional value according to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138 students who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at one university in S city from 15th November to 24th December 2016.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T-test. As a result of the study, 24.6% of respondents had received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before the clinical practice, and 60.9% of them experienced sexual

Received(May 4, 2019), Review Result(May 19, 2019)

Accepted(June 14, 2019), Published(June 30, 2019)

¹Associate Professor, 31962 Dept. Nursing, Hanseo Univ., 46 Hanseo1 Ro, Haemi-myun, Seosan-si, Chungcheongnam-do, Korea

E-mail: sjang@hanseo.ac.kr

²(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04763 College of Nursing, Hanyang Univ., 222 Wangsimni-ro, Seongdong-gu, Seoul, Korea

E-mail: leehanyi04@gmail.com

ISSN: 2383-5281 AJMAHS

Copyright © 2019 HSST

harassment during clinical practice. Verbal sexual harassment(47.8%) was the most common, followed by visual harassment(44.2%), physical harassment(39.9%).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ocial awareness ($p = .05$) and the originality of nursing ($p = .04$) among the sub-domains of nursing professional value according to the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Therefore, for the safety of students, particular attention is needed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in clinical practice.

Keywords: Nursing, Student, Nursing Education, Sexual Harassment, Professional Values

1. 서론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희롱의 문제는 의료기관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성희롱이란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1]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발행하는 성적인 언동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신체적, 심리·사회적 및 경제적 피해를 주게 된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고 동시에 직무 만족은 낮추고 이직이나 결근을 증가시키는 등 직장 내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2].

의료기관은 다양한 보건·의료직군의 직원들과 환자, 보호자 등의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곳으로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된 간호사는 특히 성희롱 피해에 취약하다. 간호사는 업무 특성상 대상자에게 긴밀한 접촉을 하는 간호 행위를 수행하고 있으며 병원의 조직 상 피고용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직군에 비해 성희롱 피해에 노출되기 쉽고, 간호사의 성희롱 피해 경험은 우울, 직무에 대한 불만족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3-6].

간호사 뿐 만 아니라 간호학생도 매우 유사한 이유로 성희롱 피해에 취약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간호학생은 우리나라 간호학 교육과정 상 1000시간 이상의 임상 실습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7] 간호학생들은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실습을 하게 된다. 그러나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과 환자와 의료인, 병원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간호학생들은 약자의 위치에 있고 이는 간호학생이 임상 실습 환경에서 성희롱 피해의 취약한 위치에 있게 하여 그 위험성이 크다[5],[8].

간호학생은 이론적으로 습득한 지식을 임상 현장에서의 실습을 통해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고 간호로서의 자질을 형성해간다[9]. 간호전문직관이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신념, 관념의 총합으로 간호에 대한 견해와 간호사의 간호활동과 그 역할 자체에 대한 직업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호사가 지닌 간호전문직관에 따라 간호가 시행되고 그 결과로 사회의 간호상이 형성된다. 간호학생의 경우 개인의 특성과 간호에 대한 견해와 더불어 간호학생의 임상 실습에서 경험하는 임상 환경은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준다[10]. 따라서 간호학생이 임상 실습 시에 경험하는 성희롱 피해 경험은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피해 경험 실태를 파악하고 성희롱 피해 경험이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추후 간호 대학생들이 긍정적인 간호 전문직관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임상실습 시 성희롱 피해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이 경험한 성희롱 피해 실태와 성희롱 피해 경험에 따라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S시에 소재한 일 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생으로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을 임의 표출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는 연구의 내용과 취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 대상자의 비밀 보장과 연구에 응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의 중도 철회 가능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사람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자료 수집은 자가 보고 형식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6년 11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설문 응답 시간은 10분 정도 걸렸다. 표본 수는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20, 유의수준 .05, 검정력 .08을 유지하기 위한 표본 수 128명이 산출되었으며,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4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불충분한 응답을 보인 설문지 3부를 제외한 총 138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에 관한 내용 6문항, 성희롱 실태와 관련된 15문항, 간호전문직관과 관련된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학년, 종교여부와 전공에 대한 만족도, 병원 실습 전 성교육 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 있는지의 여부이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1점)에서 매우 만족(=5점)으로 응답하였다.

2.3.1 성희롱 실태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동안 간호학생들이 경험하는 성희롱 피해 실태를 측정하기 위해 Kim[11]이 개발한 성희롱 도구 중 시각적 성희롱 5문항, 신체적 성희롱 5문항, 언어적 성희롱 5문항을 이용하였다. 각 문항의 피해 여부는 많다(3회이상), 있다(1-2회), 없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2.3.2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Yeun 등[12]이 개발하고 Han 등[13]이 수정한 간호전문직관 도구 18문항을 이용하였다. 전문직 자아개념(6문항), 사회적 인식(5문항), 간호의 전문성(3문항), 간호계의 역할(2

문항), 간호의 독자성(2문항) 영역으로 구분되며 5점 Likert 척도로 부정문항을 역환산 후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Han 등[1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4$ 였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5$ 였다.

2.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4.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성희롱 실태, 전호전문직관 정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성희롱 피해 여부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통계점을 위한 유의수준은 $p = .05$ 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는 총 138명으로 평균연령은 22.22 ± 1.85 년이며, 남학생은 10.9%, 여학생은 89.1%이었다. 종교를 가지지 않은 경우가 58.7%, 종교가 있는 경우가 41.3%이었으며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3.72 ± 0.74 점으로 응답하였다. 학교에서 병원 실습 전 성희롱에 대한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4.6%이며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52.2%, 기억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23.2%로 나타났다.

[표 1] 일반적 특성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age(yr)			22.22±1.85
gender	male	15(10.9)	
	female	123(89.1)	
Academic grade	3rd	69(50)	
	4th	69(50)	
religion	no	81(58.7)	
	yes	57(41.3)	
satisfaction of major			3.72±0.74
receiving education on sexual harrassment	yes	34(24.6)	
	no	72(52.2)	
	don't remember	32(23.2)	

3.2 연구대상자의 성희롱 피해 실태와 성희롱 피해 유형

임상실습 중에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적 있는 대상자는 60.9%로 나타났다[Table 2]. 시각적 성희롱을 경험한 경우는 44.2%, 신체적 성희롱을 경험한 경우는 39.9%, 언어적 성희롱을 경험한 경우는 47.8%로 나타났다.

임상 실습에서의 경험한 성희롱 유형별 세부 피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속적으로 뚫어지게 뺨히 보는 것과 특정신체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훑어 보는 시각적 성희롱을 경험한 대상자가 각각 31.9%와 31.9%이었으며 신체적 성희롱 중 가장 많이 경험한 성희롱 피해는 원하지 않는데도 신체를 만진 경우로 25.4%의 대상자가 피해를 경험했다. 언어적 성희롱 피해는 외모에 대한 비유나 품평이 44.2%로 가장 많이 경험한 피해였다.

[표 2] 임상 실습에서의 성희롱 유형별 실태

[Table 2] Frequency of Sexual Harrassment Experience during Clinical Practice by the Type of Sexual Harrassment

Type of Sexual Harrassment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No n(%)	Yes n(%)
sexual harassment	54(39.1)	84(60.9)
visual sexual harassment	77(55.8)	61(44.2)
obscene scribbles	125(90.6)	13(9.4)
Showing obscene pictures or nude photo	133(96.4)	5(3.6)
Showing or watching pornography videos on the internet	134(97.1)	4(2.9)
Gawping at a specific person persistingly	94(68.1)	44(31.9)
Staring at glancing over others specific body parts	94(68.1)	44(31.9)
Physical sexual harassment	83(60.1)	55(39.9%)
Touching or showing their own genitals intentionally	127(92.0)	11(7.9)
Unwanted physical touching	103(74.6)	35(25.4)
Brushing by other's body intentionally	111(80.4)	27(19.6)
Hugging or pressing against other's body	125(90.6)	13(9.4)
Touching body parts (face, bust, buttocks, hand...)	116(84.1)	22(15.9)
Verbal sexual harassment	72(55.2)	66(47.8)
Evaluating or comparing someone's appearance	77(55.8)	61(44.2)
Expressing someone's appearance sexually	118(85.5)	20(14.5)
Doing dirty jokes	115(83.3)	23(16.7)
Speaking about sexual experiences in public	121(87.7)	17(12.3)
Giving the nickname about physical features	131(94.9)	7(5.0)

3.3 성희롱 피해 여부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성희롱 피해 여부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들의 성희롱 피해 여부에 따라 간호전문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지만 간호전문직관의 하위 영역 중 간호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p=.05$)과 간호의 독자성($p=.04$)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3] 성희롱 피해 여부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Table 3] Comparison of Nursing Professional Value by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Nursing Professional Value		sexual harassment	
		no	yes
Nursing Professional Value	M±SD	3.73±0.44	3.61±0.40
	t(p)	1.58(.11)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M±SD	4.12±0.43	4.14±0.46
	t(p)	-0.24(.42)	
Social awareness	M±SD	3.33±0.58	3.12±0.58
	t(p)	2.02(.05)	
Professionalism of nursing	M±SD	4.16±0.57	4.08±0.56
	t(p)	0.78(.43)	
The roles of nursing service	M±SD	4.16±0.59	4.15±0.63
	t(p)	0.03(.98)	
Originality of nursing	M±SD	2.50±1.37	2.04±1.15
	t(p)	2.06(.04)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이 임상 실습 중 경험하는 성희롱 피해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희롱 피해 여부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정 의무 교육으로 대학 내의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하는 교육이다[14]. 하지만 연구 결과 학교에서 병원 실습 전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4.6%밖에 되지 않고 있다. 이는 현재까지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간호학생의 경우 학내에서의 성희롱 뿐만 아니라 임상 실습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성희롱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간호학생을 위한 맞춤형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 대상자의 60.9%가 임상 실습 중에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며[4],[6],[8], 간호학생들이 경험하는 성희롱 피해

경험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교육기관으로써 학교는 학생들이 임상 실습 현장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15]. 따라서 간호학생들이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임상 실습지에서 성희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상실습지인 병원과 학교 모두에서 안전한 실습 환경 조성을 위한 긴밀한 협조와 문화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간호학생들이 임상 실습에서 경험하는 성희롱을 유형별로 분류하였을 때 언어적 성희롱(47.8%)이 가장 많았고 시각적 성희롱(44.2%), 신체적 성희롱(39.9%)의 순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에 대한 비유나 품평이 44.2% 지속적으로 뚫어지게 뵈는 것과 특정신체 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훑어 보는 시각적 성희롱을 경험한 대상자가 각각 31.9%와 31.9% 원하지 않는데도 신체를 만진 경우로 25.4%의 피해를 경험하였다. 이는 간호학생의 성희롱 피해 유형을 조사한 일 선행연구[8]와는 유사하나 신체적 성희롱을 가장 많이 경험했다고 보고한 Kim 등의 연구[4]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성희롱 측정 도구의 차이와 더불어 간호학생들이 경험하는 실습 경험의 차이로 인한 차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추후에는 성희롱 도구의 표준화와 더불어 간호학생들의 다양한 실습 경험을 고려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학생들의 피해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성희롱 피해로 인한 정신, 심리, 신체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희롱 피해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성희롱 피해 여부에 따라 간호전문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지만 간호전문직관의 하위 영역 중 간호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간호의 독자성에 대한 인식이 성희롱 피해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개인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으로 직무와 관련된 요인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16]. 특히 간호사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인 학생 기간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미래의 간호사로서의 동기와 포부를 결정하여 추후 간호학생들의 간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정립하여 간호에 대한 만족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12]. 그러나 연구 결과와 같이 임상실습에서의 성희롱 피해 경험은 간호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에서의 성희롱 피해를 예방하고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줄이고 간호전문직관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개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국내 간호학생들은 병원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실습지에서 임상 실습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임상실습지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임상 실습시 학생들의 성희롱 피해 실태를 확인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실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성희롱 피해 여부에 따라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추후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한 의의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학생이 임상 실습 시에 경험하는 성희롱 피해 경험을 확인하고, 성희롱 피해 경험에 따른 간호학생의 간호 전문직관의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임상 실습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60.9%의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에서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 둘째, 임상실습에서 성희롱 피해 경험 여부에 따라 간호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중 사회적 인식과 간호의 독자성 인식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형성을 위해서는 임상 실습에서의 성희롱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anual of process sexual harassment, sexual violence in the workplace. Seoul (2018)
- [2] J. Hersch.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IZA world of Labor (2015).
- [3] R. S. Merkin and M. K. Shah, The impact of sexual harassment on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s, and absenteeism: findings from Pakistan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SpringerPlus. (2014), Vol.3, No.215, pp.1-13.
- [4] T. I. Kim, Y. J. Jung and M. J. Kim.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During the Clinical Practice and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7), Vol.23, No.1, pp.21-32.
- [5] G. Bronner, C. Peretz and M. Ehrenfeld, Sexual harassment of nurses and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03), Vol.42, No.6, pp.637-644.
- [6] M. Mushtaq, S. Sultana and I. Imtiaz. The trauma of sexual harassment and its mental health consequences among nurses. Journal of the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Pakistan. (2015), Vol.25, No.9, pp.675-679.
- [7] <http://www.kabone.or.kr/kabon02/index04.php>, May 1 (2019).
- [8] S. K. Lee, J. E. Song, and S. Kim.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during the clinical practice of Korean nursing students. Asian Nursing Research. (2011), Vol.5, No.3, pp.170-176.
- [9] E. H. Park and R. H. Hang. Change in the Nursing Professionalism, Role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of the Nursing Students before and after their first Clinical Experi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 Vol.15, No.1, pp.593-601.

- [10] A. Parandeh, M. Khaghanizade, E. Mohammadi, and M. J. Nouri. Factors influencing development of professional values among nursing students and instructors: a systematic review. *Global journal of health science*. (2015), Vol.7, No.2, pp.284-293.
- [11] Y. Y. Kim, The perception and actual experiences of sexual harrasment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agu (2014).
- [12] E. J. Yeun, Y. M. Kwon and O. H.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5), Vol.35, No.6, pp.1091-1100.
- [13] S. S. Han, M. H. Kim and E. K. Yun,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8), Vol.14, No.1, pp.73-79.
- [14]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s Protection Act. Article 5. (2018).
- [15] L. M. Budden, M. Birks, R. Cant, T. Bagley and T. Park. Australian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f bullying and/or harassment during clinical placement. *Coolegian*. (2017). Vol.24. No.2, pp.125-133.
- [16] S. Yarbrough, P. Martin, D. Alfred, and C. McNeill. Professional values, job satisfaction, career development, and intent to stay. *Nursing Ethics*. (2017), Vol.24, No.6, pp.675-685.